

건강 칼럼

충동 · 욕동 · 성충동 · 삶충동 · 죽음충동 그리고 체질은

사회가 불안하고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마음도 안정이 안 된다. 여유가 있고 풍요로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많아진다. 그러나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으로 힘들면 충동적 행동이 많아진다.



김수범
우리한의원장

충동구매, 도박충동, 자살충동, 살인충동, 성충동 등의 다양한 충동이 있다. 병적으로 본능적 욕구가 강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충동조절장애의 증상도 있다. 이러한 충동에 대하여 정신분석적, 사상체질적으로 자세히 알아 보고자 한다.

▲충동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충동은 반성 없이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되어 나타나는 힘이나, 식욕, 성욕처럼 인간을 내로부터 행동으로 나오는 힘을 말한다. 자신의 감정이나 분노, 화 등을 참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정신분석적 충동은 무엇인가?
정신분석에서는 충동(Instinct)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하였다. 정신분석적인 충동은 가변적, 유연적으로 육체적인 것이 심리적인 것으로 이동할 때 심리 역학적인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유전적으로 받게 된 특유의 동물적 행동 본능과는 다르다.

좀 더 설명한다면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힘의 의미인 충동보다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힘을 의미하는 욕동(衝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
▲성충동, 자아충동이란?
초기의 프로이트는 충동을 성욕이 발생하는 성충동과 생명의 기본 욕구, 기능인 배고픔, 삽식과 같은 자아충동, 자기보존충동으로 구분하였다.
성충동은 자신의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를 외부대상을 향하거나 자신의 자아를 향하는 것이다. 자아충동은 방어, 갈등에서 에너지가 자아의 편에서는 특수한 형태의 충동을 말하며 자기보존충동과 동일시 하였다.

▲삶의 충동, 죽음충동이란?
후기의 프로이트는 "쾌락원칙을 넘어서"(1920년)에서 삶충동과 죽음충동으로 이원화 하였다. 삶충동은 존재하는 생명체의 통일성과 존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에로스(사랑의 충동)란 용어로 지칭되며 성충동과 동일시 하였다.
▲죽음 충동은?
자아충동, 자기보존충동을 일체시키고자 했다. 죽음충동은 생물을 무생물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충동

으로 생물이 무생물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근본적인 경향을 말한다. 리강은 모든 충동들은 죽음의 충동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모든 충동은 과도한 것이고 반복적이며 궁극적으로는 파괴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쾌락원칙을 넘어서서 즐거움이 고통으로 경험되는 과도한 향락의 영역으로 들어가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향한 자기 자신의 길을 인체의 보장하는 것을 가능으로 하는 부분충동으로 보았다. 동양철학에서의 음양오행의 순환에 따라 생로병사하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하다.

▲충동의 목적은 무엇인가?
충동의 목적은 한 가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주위를 맴도는 것이며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즉 완전한 만족이라는 어떤 신화적 목표가 아니다. 순환도로 되돌아 가는 것으로 폐쇄회로의 반복적 움직임이다.
▲충동의 회로는 무엇인가?
충동이 생각대에서 발생하여 대상을 주위를 맴돌다가 생각대로 되

돌아간다. 세 개의 문법적인 태로 구성된다. 첫째 능동태는 "보는 것", 둘째 재귀태는 "자신을 보는 것", 셋째 수동태는 "보이는 것"이다. 능동태, 재귀태는 자기성에 적이며, 주체가 결여되어 있다. 네째 수동태에서는 '새로운 주제'가 나타나며,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네 가지 부분충동은 무엇인가?
네 가지 부분충동은 구강충동, 항문충동, 시각충동, 청각충동이다. 구강충동의 생각대는 입술이며 부분적대상은 젓가슴이고 빠는 행위를 말한다.

항문충동의 생각대는 항문이며 부분적대상은 대변이고, 똥을 누며 시원함을 느끼는 행위를 말한다. 시각충동의 생각대는 눈이며, 부분적대상은 시선이고 보아서 즐거움을 느끼는 행위를 말한다. 청각충동의 생각대는 귀이며 부분대상은 목소리이고 아름다운소리를 듣는 행위를 말한다.충동을 사상체질의 학적인 면에서 본다면 사상체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태음인의 경우는 충동이 분노와 같이 극도의 화가 오르는 것이다. 소양인은 순간을 참지 못하고 열이 올라가며 바로 풀려지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태음인은 참고 참다가 한계치에 이르러 되면 화와 열이 올라가는 경향으로 나타낸다. 소음인은 평소에는 참고 인내하고 소극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극도에 이르렀을 경우 울광증으로 올라오게 된다.

사설

새로운 한미 관계의 해법

바이든 시대 한미 관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은 먼저 북핵 문제의 해법 찾기를 모색해야 한다. 미국은 집권 대통령 보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 대한 압박도 줄어들 것이다. 반면 동맹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주문받게 될 전망이다.

한미 정상 간에 교류를 보다 조기에 성사시켜야 한다. 최대 한미 빨리 정상회담을 해서 한반도 문제를 미국 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려놓는 일이 중요하다. 한반도 문제를 위한 평화 프로세스 공강대를 재확인해야 한다.

한미 첫 정상회담은 부시 대통령 취임 때 3월, 오바마 대통령 때 4월에 각각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두 달이 안 돼 단났다. 한국은 지금 오는 3월 이 내 정상회담을 목표로 잡고 있다.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훈련은 일정상 가장 먼저 달칠 현안이다. 북한은 대화를 하려면 먼저 한미연합 훈련을 중지하라

고 한 상태다. 북한은 한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전시 작전 통제권을 정부 계획대로 내년까지 가져오려면 이 훈련은 필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미가 이 문제를 조율하는 과정이 대북 정책 논의의 시작점일 수도 있다. 또한 한미 간에 서둘러 정리해야 할 사안은 방위비다.

이 문제는 비교적 수월해 보인다. 바이든은 주한미군 철수를 꺼내며 인상을 요구한 트럼프와 다르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말해 왔다. 국방장관도 "조기 타결"을 언급했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것도 당면과제일 것이다. 미국은 당장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미일 삼각 협력을 중요시한다.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이다. 미국의 전략 차원에서 중재 압박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전북 아마추어 천문회 황원호 회장

전북 도내 일선 학교에 천문대(天文臺, observatory) 건립을 늘려야 한다. 천체(天體)는 천문학의 대상이 되는 우주 공간의 모든 물체다. 태양, 행성, 위성, 혜성, 소행성, 항성, 성단, 성운, 은하 등이 해당된다.

지구에 속하는 것은 제외되며 인공위성·인공행성 등은 인공천체로 구별된다. 천문대는 별, 행성, 은하계 등 천체를 관찰하는 곳이다. 지난 2000년 7월 15일 전주북일초등학교 옥상 서쪽에 천문대가 세워졌다.

당시 학부모협의회 황원호 회장은 자발적인 성금으로 천문대를 설치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전문 분야의 전문가로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는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전북회장을 지냈다.

북일초 천문대는 개기월식의 '우주 빅쇼'가 있던 날에 맞춰 문을 열었다. 천문대에는 직경 2.8m, 높이 4.8m의 돔 형태로 3백60도 회전이 가능한 관찰대에 구경 1백50mm, 초점거리 1천2백

mm의 굴절식 망원경을 갖는다. 북일초는 천문반을 편성해 우주 관찰 실습을 본격 실시했다. 전교생은 물론 다른 학교 학생에게도 시설을 개방했다. 국내 천문 관측은 강화도 마니산 관성단(觀星壇)에서부터 시작됐다.

참성단은 단군시대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일식·월식과 북극 고도를 관측했던 곳이다. 지금은 체육대회에 사용하는 성화를 태양으로부터 만들고 있다. 647년 신라 때 건립된 경주의 첨성대(국보 제31호)는 360개의 돌로 쌓았으며 별자리를 관찰했다.

우주과학은 물론 융합과학으로 진행되는 필수적인 기초과학이 바로 천문학이다. 그러나 천체물리 과학 분야는 매우 초라하다. 천문대를 통해 '과학 한국'의 원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천문대는 우주 정보화 시대에 새로운 우주 과학자들을 배출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주와 미래를 향한 원대한 꿈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고문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어느덧 겨울이 지나가는 3월이 다가온다. 얼겨울은 다른 해에 비해 유난히 추웠던 것 같다. 3월은 본격적인 해빙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공사장 주변의 지반이 침하하거나 토사 붕괴 현상 등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동절기 폭설, 한파로 인해 공사장 및 건축물 등, 저수지 강과 같은 곳에서 동결과 융해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기온의 급변으로 인해 공사장의 붕괴 위험과 저수지, 강 등의 얼음이 약해져 녹아, 빙산놀이 등으로 인명사고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저수지나 강과 같은 물가의 상황으로 유심히 살펴야 한다. 가급적 얼음 위에서 낚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아이들이 얼음 위에서 놀 경우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해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잠대나 로프 등을 이용해 구조를 시도해야 한다.

둘째, 공사장이나 축대 등과 같은 곳에서의 상황으로 봐야 한다. 이런 경우 얼음은 상황을 봐야 한다. 이런 경우는 집 주변의 공사장, 잘린 땅, 낙석 위험 지역, 축대, 축대벽 붕괴위험이 있는 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붕



서은식
익산소방서
구조대 소방장

괴 위험이 있을 시에는 통행 금지 또는 사용 제한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합부로 치우거나 위험지역에 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셋째, 산행 예방법을 살펴야 한다.

날씨가 많이 풀렸다고 가벼운 복장으로 산행을 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산과 같은 고지대를 가보면 눈과 얼음이 녹지 않아 한겨울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벼운 옷차림으로 출발하더라도 가방 속에 두툼한 외투를 챙겨 체온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눈이 녹지 않아 빙판길도 많이 있을 것이다. 미끄럼 방지를 위해 아이젠을 챙겨 사고 예방에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곧 봄과 마음이 녹여줄 봄이 올 것이다. 봄과 마음이 느슨해질 때, 사고 발생이 더 많아진다. 우리 모두 안전사고 예방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사고 없는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